

土種 홍화씨
興國農産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지리산지역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임조각 품종
● 품질있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춤사위에 부처님 가르침 담아요”

신문박의 **시방** 무용가 손재현 동국대 교수

문화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거세다. 음악은 물론 미술, 무용, 연극, 영상 등 각 분야에 걸쳐 이질적인 것들의 뒤섞임 속에서 또 하나의 문화가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과 서양이 만나기도 하고 음악과 미술이 어울린 지라에 연극적인 퍼포먼스가 행해지기도 한다. 예술뿐만 아니라 음식에서도 이른바 '퓨전(fusion)푸드'라는 것이 생겨나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국적 불명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장르의 벽을 허물 뿐 아니라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길을 트는 이러한 움직임은 '2000. 새로운 예술의 해'의 주제가기도 하다. 불교계에서도 이런 추세를 이끌며 전통 발레에 불교문화를 접목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포교 무용가가 있다. 지난해 불교 포교 무용단인 '손재현무용단'을 창단한 동국대 체육학과 무용담당 손재현교수(40세)가 바로 그다.

"대학 시절 스승이 춤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교는 목사님의 설교나 인쇄 매체 등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춤의 선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용을 통해 불교를 일반인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지요."

그러나 손교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교 무용의 주류를 이룬 한국 전통 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그는 발레만을 고집했다. 이렇게 서양 무용만을 공부해온 그에게 포교 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잡히게

불교 포교무용단 작년 창단 발레에 불교 접목 새장르 개척 무용극 '에밀레종' 초파일 재공연

것은 지난해 6월3일, '손재현 포교 무용단' 창단기념으로 동국대 문화예술극장에서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일명 에밀레종)의 주조 과정에 녹아 있는 불상을 주제로 한 불교무용극 '님의 소리'를 공연하면서 부터다. '님의 소리'는 신체언어인 서양 발레에 대사를 삽입한 고대 최초의 무용극이었다. 물론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입이었다.

'님의 소리'는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어 낸 신라인들의 불심과 장인 정신, 그 속에 서려 있는 한과 님 등을 현대 창작 발레로 표현했다.

"과거에 발레를 공연할 때면 무대에서 내려 온 뒤 원지 모를 허탈함에 휩싸인 적이 많았습니다. 완벽한 공연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던 과정들이 춤 한 동작, 한 움직임에 실려 순간적으로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쉬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무대 밖에서 무용수들을 보니 최선을 다한 춤사위는 관객들의 마음에 영민히 각인돼 공명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춤사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육체의 동작이 아니라 마음 즉 영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포교 무용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다. '님의 소리'

서울 공연 한달 뒤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일주일 간 네델란드와 이스라엘에서도 공연되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단일 행사로는 세계 최대 무용페스티벌인 '카이말 국제 댄스페스티벌'에 참가해 약 20만명의 관객 앞에서 총 5회에 걸쳐 공연하기도 했다.

"춤이란 게 의욕만 앞선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춤사위의 한 동작 한 움직임이 바로 '내 마음이 가 있는 자리'입니다. 무대에 들어서면 무용수는 일단 모든 생각을 무(無)의 상태로 돌려 놓고 시도해야 합니다. 춤추는 행위 그 자체에만 몰입하여, 춤이 나인지 내가 춤추는 구별이 안가는 경지까지 가야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요."

천년이 저물어 가는 지난해 12월 16일 밀레니엄 페스티벌의 기획으로 공연했던 '월광무'는 바로 그가 주장하는 몰입의 경지가 잘 배어난 작품이었다. 비단검무를 비롯해 우리굿과 사물, 국악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신명나는 춤판이었다.

그는 지금 또 하나의 작품 구상에 몰입해 있다. 사할 입구에서 도랑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천왕의 표정을 볼 때마다 그들이 짓고 있는 각기 다른 표정들을 무용으로 각색해 보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다. 현대 발레와 사천왕의 이미지를 결합해 재미있게 표현한다면 일반인들에게 불교의 상징물을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포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그는 올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지난해 무대에 올랐던 '님의 소리'를, 출연 무용수들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스님역에 실제 스님을 출연시키는 등 내용과 형식면에서 현실감 있게 보완 각색한 '에밀레종'을 공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주종장들이 춤을 만드는 과정과 발을 밟으면서까지 불도에 귀의하는 정아 어머니의 숭화된 불심이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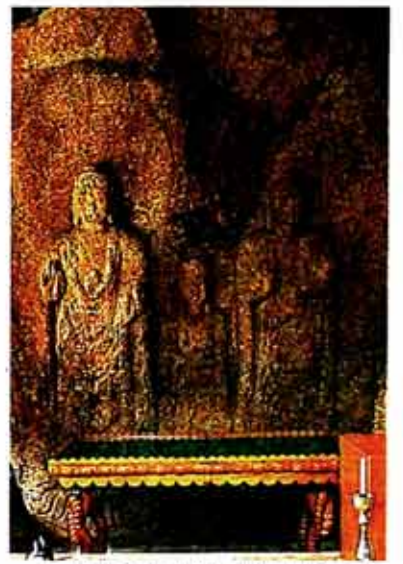
김주필 기자(jkim@buddhapia.com)



○ 지난해 6월3일 동국대 문화예술극장에서 공연된 불교 무용극 '님의 소리', 주종장들의 역동적이고 빠른 움직임이 돋보인다.



○ 천년이 저물어 가는 지난해 12월16일 밀레니엄 페스티벌로 기획된 '월광무', 서양 발레와 비단검무, 국악, 사물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져 신명나는 한미담을 꾸었다.



○ 강건하면서도 세련된 백제불상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태안 마애삼존불.

마애불을 찾아서

태안 마애삼존불 입상

6세기 후반 백제불 조각품 곱혀

돈을 새김·팽이모양 육계 '눈길'

충남 태안군 태안을 등문리, 서해가 내려다 보이는 백제산의 돌출한 바위에 물을 새김으로 새겨져 있는 이 마애불은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비위를 파서 감실모양을 이루면서 부조된 이 불상은 우선 중국의 석굴 바깥벽에 새겨진 불상들과 닮았기 때문에 중국 문화와 해상교류의 흔적 내지는 중국 석굴의 영향이 보이는 최초의 예로서 주목되고 있다. 또한 석주에 새긴 예산 사방불을 제외하고는 불에 새긴 불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는 점도 중시되어 왔다. 이 불상의 몸이모양의 육계, 강건한 얼굴, 당당한 신체와 묵중함 법의 등은 6세기 후반기의 백제불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걸작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런 형식은 현재까지 발견된 세계 유일의 예로, 강건하면서도 세련된 백제불상 양식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함께 이 불상의 진가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보물 제432호.
글·사진 = 불지포교사건연협회 (011-337-7312)

신개념! 숙면, 케빈 그리고 氣... 장인 화제 특별 실용신안 특허 출원(20-00394) **황혼 물침대 겸용 돌침대 탄생!!**



딱딱한 돌침대를 물침대로... 2Way Bed... 돌침대로! 물침대로! 돌침대 받들기 10년, 설치가 전자파 제거 기능용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특허(등록 0157501)제품

- 돌침대의 효능...**
- ◆ 몸(가정)세물을 안달면 발바닥이 차고... 창안 돌침대가 필요할때
 - ◆ 여름에 새만바닥 축축하고 눅눅한 냉기... 라빙스톤으로 시원하게
 - ◆ 척추를 받들듯 고정해 줍니다.
 -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합니다.
 - ◆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 ◆ 침대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내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 ◆ 초장파 시스명으로 몸속 깊숙이 충전국을 끌어옵니다.
 -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원천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줄 수 있습니다
 - ◆ 한달 전기료는 1000원 인위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 원적외선의 풍부함을 온가족이 맛 볼 수 있는 기회! 돌침대의 벽을 깬다! n세대부터 노어른까지 주문 밀려 선택은 주문 받습니다. 전국 무료 배송!

공정거래의 중요 **氣 리빙스톤 (옥스톤)**
본사·A/S : (02)424-9427 직영점: 0333)618-7773